
 해양수산부		<b>보 도 자 료</b>		 내 삶을 바꾸는 <b>규제혁신</b> 대한민국 대원량 <b>한국판뉴딜</b>
		배 포 일	2021. 7. 9.(금) 총 6매(본문 3, 참고 3)	
담당 부서	해양생태과	담 당 자	• 과장 이재영, 행정사무관 장유경, 주무관 황유영 • ☎ (044)200-5310, 5315, 5317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센터장 원정해, 연구책임자 모영동, 전임연구원 이창수 • ☎ (041)950-0744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12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11.(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 유해·교란 해양생물, 어디까지 알고 있니?

### - 해수부-국립중앙도서관, 유해·교란 해양생물 특별전시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12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유해해양생물’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하 ‘유해·교란 해양생물’)을 주제로 하는 특별 전시회인 「놀러 와도 괜찮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에서 유입되어 해양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해양생물이며, ‘유해해양생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된 종을 의미한다.

현재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은 유령멍게 1종이 지정되어 있고, 유해해양생물은 해수욕장 쏘임사고와 어업활동 방해의 주범인 독성 해파리, 식중독이나 대규모 적조 피해를 일으키는 유해 플랑크톤, 번식력이 뛰어나 양식장에 피해를 입히고 주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끼벌레류나 불가사리류 등 17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유해·교란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기술 개발(R&D) 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해양생태계교란 및 유해해양생물의 관리기술 개발(R&D)’ 사업(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주관)을 통해 유해·교란 해양생물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감시와 관리 기술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작년에는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라는 주제로 충남 서천에 위치한 국립 해양생물자원관에서 해당 전시회를 진행하였는데, 올해는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국립세종도서관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전시 내용은 크게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개념과 지정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유해·교란 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기술 및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로 구성된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독성 해파리, 유해 플랑크톤과 같은 유해·교란 해양생물들이 우리 바다에 어떻게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일반 시민들과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사용자의 동작에 반응하는 매체도 활용하여 관람에 재미요소를 더했다.

이번 전시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도서관에 방문하려면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http://sejong.nl.go.kr>)을 통해 사전 방문 예약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체온 확인 등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며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041-950-0744)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이번 전시가 국민들이 해양 생태계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해·교란 해양생물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유해·교란 해양생물의 이야기를 다룬 이번 특별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발걸음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 참고 1

## 「놀러 와도 괜찮아」 특별전시회 포스터



## 참고 2

### ‘20년 「초대받지 않은 손님」 전시 모습



## 참고 3

### 유해 · 교란해양생물 지정 현황

분류	생물명	사 진	주 요 특 징
유해 해양 생물	자포 동물 (5종)	노무라입깃 해파리	• 우리나라 출현 해파리 중 크고 독성이 강한 종, 수산업 그물 파손 및 축수에 접촉 시 위험
		작은부레관 해파리	• 축수에 물고기나 사람이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이 가해지면 독소 주입, 열대·아열대 종으로 인간에 치명적
		보름달물 해파리	• 보름달물해파리들은 대량 발생·집단 서식 수산물을 어획하는 과정에서 그물을 가득 메워 수산업에 피해
		작은상자 해파리	• 태평양 연안에 분포하고, 제주와 남해 연안에서 관찰됨. 맹독을 이용하여 자치어 등 자신의 몸보다 큰 먹이를 축수로 쏘아 포식하며, 해변에서 주로 관찰되어 인명피해를 유발
		커튼원양 해파리	• 남해안에서의 출현이 두드러지며, 동해 남부에서도 출현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맹독성으로 쏘인 부위에 심한 통증과 감각 이상이 동반되며 붉은 반점이 나타남
	식물 플랑크톤 (5종)	코클로디니움	• 극동해역에서 유해 적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물플랑크톤, 물고기의 아가미에 달라붙어 호흡곤란 유발
		차토넬라	• 1960년대 일본 연안에서 적조발생 원인, 물고기에 달라붙어 심장박동을 느리게 만들고, 산소공급 부족으로 물고기 치사
		알렉산드리움	• 신경독소인 마비성패독 보유, 독성이 축적된 조개류를 먹게 되면, 혀, 입술, 손발 등에 경련이나 마비현상 초래
		슈도니치아	• 사람이 섭취하면 경련, 설사, 위의 통증, 심한 경우에는 방향 감각 상실 및 기억 상실증 유발
		디니피시스	• 연안의 조개류 등 물속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저서생물이 디니피시스를 먹으면 복통, 설사 및 위장장애 유발
태형 동물 (3종)	관막이끼벌레	• 매우 작은 크기의 개체들이 군체를 형성하여 패각표면을 덮어 버리거나, 해조류 표면을 습격하여 해조류의 광합성 방해	
	셋방가시 이끼벌레	• 군체성 동물, 물속 바위표면을 점유하면, 다른 부착성 무척추동물이나 해조류 등은 삶의 터전 상실	
	자주빛 이끼벌레	• 전세계적으로 분포된 전형적인 부착 오손생물, 암반표면등의 덮으면서 성장하므로 다른 부착생물 부착 불가능	
극피 동물 (2종)	아무르 불가사리	• 바다의 해적생물, 포식자로 이동능력이 뛰어나 해양생태계 교란행위를 자행하며 양식장에 피해 발생	
	별불가사리	• 굴, 전복, 조개 등 연안어업 및 양식업에 피해발생, 하지만 황폐한 바다 속에서 유기물을 섭식하므로 바다의 청소부 역할도 함	
식물 (2종)	갯줄풀	• 다년생 벼과식물로 기수성의 다년생 초본으로 튼튼한 지하경을 길게 뻗고, 강하며 잔뿌리가 많아 복잡한 근계를 형성	
	영국갯끈풀	• <i>S.alterniflora</i> (갯줄풀)와 영국 남부지역의 자생종인 <i>S.maritima</i> 의 교잡된 종으로 다생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고, 낮은 온도에서도 광합성을 하고 생산성이 높음	
교란	척삭 동물 (1종)	유령명게	• 원산지 대서양, 양식장 시설, 선박 밑 등에 서식, 양식장의 경우 양식종이 붙어 살 곳을 차지 또는 성장을 방해해 피해를 줌